

[로스쿨 합격기]

당신을 위한 자리

송 용 규

- 수원 청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제9기)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전형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에 입학한 송용규입니다. 저에게 딱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한 비법이랄 것이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이 남에게 내세울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합격수기를 써야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전형이 소수의 인원을 뽑는데다가 참고할 사례가 많이 없어, 어렵게 입학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저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일 뿐이니 그저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I.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저는 법정차상위계층으로 특별전형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저 또한 그러한 유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는 방과 후에 전 단지를 돌리는 것이 일과였고, 고등학교 때는 주말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급식비를 미납하여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집에 오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응대 했으며 가스가 끊겨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했던 것이 저의 초중고 시절입니다. 당시 어린 생각에는 원래 세상이 그렇고 다들 비슷하게 사는 줄 알

았으나 사실 일반적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제적 상황을 서술한 이유는 저와 같은 경제적 약자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진학하나 싶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사회적 약자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쉽게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Ⅲ. 준비계기

법학전문대학원에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의 오랜 꿈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자’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단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너무 많은 것을 사전에 결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 겪었던 과거를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전단지 돌릴 때 제가 일했던 치킨집에서는 전단지 한 장당 10원을 주었습니다. 1시간 내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00장을 돌리면 천원을 받았습니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돈이라도 벌려고 일만 시켜주면 넘죽 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을 비롯해 각종 아르바이트 하며 느꼈던 노동착취를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진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서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Ⅳ. 진학준비

저는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학점, 리트, 영어,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마다 이 요소들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찾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정량보다 정성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하여 정성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서강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영어

영어는 TOEIC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어 점수는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에 4학년이 되면 취업을 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토익점수를 사용했습니다. 토익은 모의고사를 매일 1회씩 풀었고 학원에 따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20회 조금 넘게 풀었습니다. 시간을 재어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고 단어를 외우는데 하루에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토익 영어지문과 유형을 눈에 익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문제 1회를 풀었을 때는 모의고사 점수표로 800초반의 실력이었고, 공부 후에 실전에서는 900중후반 점수를 얻었습니다. 처음 점수가 저와 비슷하다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학점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기 전에는 학점 관리를 하지 않아 평점이 높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바로 위에서 저공비행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미 지나간 학점은 어쩔 수 없었고, 이제부터라도 올 A+을 맞는다는 각오로 4학년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학부 성적표를 보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성적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좋게 해석하면 점차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학점이 낮다고 자책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기로 마음먹은 지금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 리트(LEET)

리트는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응시료면제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이 넘는 응시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는 실질 리트반영률이 낮은 학교여서 저리트 학생들이 도전해볼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하지만 컨디션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트는 당일 컨디션과 순간의 집중력이 중요한 한방 시험입니다. 저는 리트 전날에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수능시험을 비롯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이 오질 않는데, 아침에 선잠을 자고 일어나니 몸이 피곤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실

패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트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시험보기 최소 2주 전부터 생각해보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

서강대학교는 정량적인 요소의 반영비율이 낮고, 정성적 요소인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공 들여 써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트 준비를 했던 시간보다 리트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리트는 펜 하나 잡고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가 나름 재미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총 6,000자를 써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도 뭔가 부족해보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눈물로 써야한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자소서에는 항목이 3개인데 자기소개,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 졸업 후의 진로 및 계획으로 각 2,000자씩 서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항목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저만의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자기소개에서는 저의 경제적 환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꿈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한 활동들을 적었습니다. 지원 동기에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구체적 사건을 하나 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썼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동인권, 노동인권, 그리고 간호사의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서강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화 분야에 대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기업법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와 궁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없이 제 자신을 진솔하게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 사회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체 게바라에 대한 부분을 빼라고 했고, 저도 기업법에 특화된 서강대학교에 배치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을 체 게바라 없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다만 글 속에서 부드럽게 녹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요령 같은 것이 없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고를 쓰고 나서 저를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10명 정도에게

부탁하여 자기소개서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모르는 내 자신에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드백을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그것이 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괜찮은 글을 완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면접준비

면접은 서강대학교 서류 1차 합격자들 4명이 모여 스터디룸을 잡고 준비했습니다. 방식은 1:1로 짝을 지어 각자가 준비해 온 면접 문제로 실제 면접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면접문제는 최근 사회이슈를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각자가 준비해 온 면접 문제를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면 매일 4개의 이슈를 새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최신 이슈는 대부분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나온 로스쿨 면접 문제 대비 집을 사서 중요한 면접 문제들을 따로 보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면접문제가 예상문제 중에 나와서 교수님들 질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V. 합격과 고민

저는 진로를 정해야하는 4학년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쓴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합격의 순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진로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우리가족에게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일하시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인지 일꾼인지 헷갈리는 아르바이트 인생도 청산하고, ‘돈, 돈’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간다면 이런 생활을 최소 3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싫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 여부를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진다면 미련 없이 일하러 갈 수 있으니 편할 것 같았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쟁률이 10:1이 넘어간 것을 보고 기대감을 접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운인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자체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취직준비보다 훨씬 공을 들였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등록일 직전까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
다. 나 같은 빈민이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
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욕심 같았습니다. 또한 간다고 해도 변호사가 된다는 보
장이 없는데,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 때 뒤가 없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
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족들, 친구들과 오랫동안 상의했
고 마지막 결정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것은 ‘법’이 무엇인지 인
터넷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아동복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2조
(기본이념) 1항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 자라나
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
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본 순간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동을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이념이 법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며 뭔가 과거에 대한 서러운 감정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진학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믿고 법학전문대
학원에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VI. 로스쿨 생활

결과적으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멋진 동기들과 공부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서강대학교에 감사하고 저를 위
해 기도해주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
한다는 것이 어색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금은 특별전형으로 입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학금이 없
다면 여기 올 꿈조차 꾸지 못했을텐데 사회에 갓아야 할 빛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로스쿨 합격증만으로 2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
설할 수 있고, 여타 대출을 끌어다 쓰면 3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서는 입학 전 민법을 1회독하고 들어왔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면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2.2이라는 학교 기준이 있는데, 이에 미달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학
고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진짜 걱정 있다면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는 것인데, 저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딱 한 번의 응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최악의 상황에 대해 상상하고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저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기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친구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법정 경제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분위가 낮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서 다니면 됩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그런 곳을 목표로 해도 됩니다. 그럼 '당신을 위한 자리'에 당신이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